



APCASSO 인권 협약

-HIV/AIDS에 대한 공동체적 대처 방안의 기본 구조-

인권에 대한 공동체적 발의

1991년 2월, 타일랜드,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 중인 여러 비정부기구들과 지역 단체들은 각국의 에이즈 실태를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규명하며, 에이즈 문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 중에 규정된 4가지 주요 영역 중의 하나가 바로 에이즈에 연관된 인권 문제였다. 인권은 에이즈의 예방과 에이즈에 대한 여러 서비스의 제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들이나, 소외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만큼 에이즈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식이 갖추어진 후에야 의미있는 예방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여러 공동체의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2년 후, 1993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거의 같은 단체들(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참가국으로, 세네갈이 원조국으로 참여했다.)이 다시 모임을 갖고 에이즈 관련 법률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옹호자로서, 로비 단체로서 활동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하며, 에이즈 감염자에게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동조자로서 권한을 부강화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던 1991년 계획안의 실현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정보의 보급이나 몇가지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몇몇 성과를 거두었음이 밝혀졌던 반면에, 인권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HIV 양성 반응을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거부라든가 그들에 대한 국의 추방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한 자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인권 침해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단체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작업을 보다 체계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APCASSO는 지역 내에 자료 수집과 감시, 그리고 보고 체계를 세우려는 안을 개발하였고, 이에 다시, 동남아시아의 네 국가와 남아시아의 한 국가의 여러 비정부기구들, 지역단체들, 감염자들이 이 PILOT PHASE에 참여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1994년, 감시와 자료 수집을 위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여러 관련 기술들을 습득하는 동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 공동체가 HIV/AIDS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동의 기본 구조와 의무 사항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합의서의 초안은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후, 이 합의서는 1995년 4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워크샵에서 발표되었고, 인권 협의회에서 이를 더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 단체는 이 행동 규정을 APCASSO 인권 발의로 공식적으로 명명하였다.

APCASSO 인권 협약은 인권을 HIV에 대한 모든 효과적 대응 방안의 합일체로 인식하는 의견의 결정체이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에이즈에 대해 이상적인 지지 환경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는 지속적인 자문 과정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에이즈와 인권

에이즈와 에이즈에 대한 대응은 여러 면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감염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 HIV/AIDS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그 실행 과정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저축할 우려가 있다.

- 인권에 대한 위협은 HIV/AIDS의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 인권을 증진시키고 존중하는 자세는 특정 그룹들의 HIV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에이즈, 건강과 인권, 적십자와 적신월사(赤新月社) 국제 연맹, 하버드 공중 보건 학교 1995—

어떤 경우에도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공동 대처의 핵심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관심에 있어야 한다.

국제 인권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또,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서 대해야 한다.”

동시에, 이 선언문은 인권 존중에 따라 인간은 법 앞에서의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범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차별이나 차별로 인한 결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과(1장 7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그 외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 국가적 혹은 사회적 배경, 재산, 태생이나 또는 다른 지위에 따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1장 2절)

HIV/AIDS 감염자들과 보건자들, 또 이 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 모두가 인간 평등권과 인간 존엄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다른 지위란 용어는 건강 상태나 HIV 양성 반응 상태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종교나 사회적 규준, 문화적 관습 등에 따라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연합 회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평등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안과 또, 이런 차별을 영속시키는 사회적, 문화적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약소그룹의 처지(입장)/사회적 불평등

특히 제3세계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의 원인들은 가난, 불평등, 착취, 무력함, 차별대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에이즈와 그 영향에 더욱 상처입기 쉽다.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는 중속적이다. 그것은 여성들이 HIV에 감염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고 그들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그런 것들을 협상할 만한 힘이 없도록 만든다. 이것은 HIV감염에 대한 위험 노출을 증가시킨다.

동성애자들이나 마약복용자들, 그리고 윤락여성들과 같이 사회에서 이미 낙인찍힌 집단들은 구속, 폭력, 격화된 대우와 같은 여러 형태의 차별대우를 받고 인권을 거부당한다.

이런 상황은 이미 감염자들의 개인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삶에 더욱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만약 우리가 에이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 불평등과 무력함, 그리고 연약함과 같은 상황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인권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번역 : 자원 봉사단 심윤돈, 이민수, 진정현

이 내용은 'UNDP에서 발행한 마·태지역의 HIV 보고서 중 APCASO의 인권협약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